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고찰

허 정 훈*

目 次

- I. 서 론
- II. 선과 복의 구별
- III. 무조건적 선으로서의 선의지
- IV. 행복과 인간 이성의 기능
- V. 결 론

I. 서 론

칸트의 실천철학은 도덕적 의무의 철학으로 나아가 순 형식적인 법칙주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향의 주된 이유는 도덕형이상학은 인간학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에 기초한다. 분명히 칸트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 또는 인간 본성의 어떤 측면 또는 인간의 삶이나 사회의 어떤 요소에서도 도덕법의 궁극적 기초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 칸트가 실천이성이나 이성적인 의지를 도덕법의 기초로서 말하고 있는 경우에 그는 실천이성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특이한 종류의 유한한 존재 즉 인간 존재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천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건 아니건 간에 이성적 존재인 한에서 의무에 복종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에게 관계된 것으로서의 도덕적 법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관념은 어떠한 경험적인 제약이나 목적, 대상에 의거함이 없이, 심지어 행복마저도 도외시하고서, 오직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의지로 이해된다. 나아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행위도 어떤 행위의 대상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오직 형식적인 법칙에 따른 행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법칙주의적 해석이 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충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분명히 도덕적인 삶에서 감성계에 속할 수

*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밖에 없는 유한한 감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점을 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칸트는 특유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경향성과 욕구의 만족으로서의 행복을 실천이성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선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만일 칸트가 행복마저도 도의시하고 오직 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면, 왜 행복을 최고선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일 칸트가 오로지 이성적 존재 일반에 대한 최고선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래서 인간에게서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행위 규칙에 대한 관심이 칸트에게서 도의시되었다면, 최고선에 행복을 포함시켜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최고선은 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전체를 이루는 완전선이라고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선 속에 인간의 욕구 만족으로서의 행복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 두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한편으로는 도덕법칙을 위해 인간의 욕구는 물론 욕구 만족으로서의 행복에 어떠한 의의도 두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 원리는 그 어떤 도덕성도 부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이성이 인간에게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도덕적 행위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는 칸트가 볼프에 가했던 비판, 즉 선천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단순히 뒤섞어 놓았다는 비판을 다시 칸트에 적용¹⁾할 수 있는가? 칸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칸트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비일관성이 단순히 비일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칸트가 선천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마구잡이로 뒤섞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해석의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본고는 행복에 대한 칸트의 이런 이중적 견해를 드러내고,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런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본고는 최고선이 실천이성의 대상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의거해서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실천이성의 대상은 무엇이며, 행복은 실천이성의 대상일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선과 복의 구별

행위는 항상 산출하려고 하는 일정한 대상 또는 목적을 지향하며, 그런 대상은 행위를 통해서

1) F.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Westminster: The Newman Press, 1960), vol. VI, p.312 참조.

실현된다. 도덕적 행위도 행위인 이상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대상은 선과 악이라고 말해진다. 칸트도 이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그렇지만, 칸트에 의하면 선은 욕구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의미하고, 악은 혐오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의미한다.²⁾ 즉 선은 모든 이성적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욕구능력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악은 만인이 보아서 혐오능력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욕구능력의 필연적 대상으로서의 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칸트의 한가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능력은 동물처럼 본능에 의존해 있지 않고, 이성에 의존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서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대상을 산출하는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더 나아가 그 행위를 의욕하는 욕구능력을 일정한 원리 하에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원리는 실천이성의 원리이므로, 결과적으로 욕구능력의 필연적 대상은 실천이성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행위의 대상에 대한 문제는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로 전환된다.

칸트는 실천이성의 대상이란 개념으로서 “자유를 통해 가능한 결과로서의 객관들”³⁾을 의미한다고 한다. 객관들은 행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대상들이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그런 대상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의 문제는 대상에 대한 규정의 문제인 데 비해, 후자에서는 대상의 실현 조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현 조건들에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들이 포함되며, 그것은 경험의 문제에 속한다. 어떤 대상이 인간 능력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경험의 문제는 칸트에 의하면,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와 반대로 만일 선천적 법칙이 행위의 규정근거로 보아질 수 있다면, 따라서 순수 실천이성이 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이나 아니냐 하는 판단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과 비교하는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⁴⁾고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의 대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그 대상의 규정에 대한 문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순수 실천이성이 대상은 무엇인가? 칸트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이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만일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능력(이

2)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rsg. von Karl Vorländer (Verlag von Felix Meiner in Hambrug, 1974), s.68-9. 이하 K.d.p.V라 약칭함.

3) K.d.p.V., s.68.

4) Ibid.

능력에 대해서는 경험이 판단한다)을 가졌다면, 그로 인해서 객관이 실현되는 행위를 의욕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 . . 그래서 문제는 만일 객관을 노리는 행위를 우리가 과연 의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뿐이다.”⁵⁾

그러므로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는 칸트에 의하면, “행위의 도덕적 가능성”⁶⁾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된다.

왜 칸트는 이처럼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행위의 도덕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 전환은 “선악의 개념이 일견해서 도덕법의 근본에 두어져야 할 듯 하지만, 도덕법 이전에 규정되지 않고 오직 도덕법 이후에 또 도덕법을 통해서 규정되어야 한다”⁷⁾는 이유에서이다. 즉 우리가 먼저 선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그로부터 의욕의 원리나 의지의 법칙을 도출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선의 개념이 그 대상을 의욕하는 의지의 유일한 규정 근거가 된다. 그런 의지의 유일한 규정근거로서의 선의 개념은 그 어떤 것, 즉 그것을 산출하고자 하는 주관의 원인성, 다시 말해서 욕구능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된다. 말하자면 어떤 것이 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욕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의 개념은 어떤 선천적인 실천법칙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의 선 또는 악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천적인 법칙에서가 아니라, 의지 외부의 감각에서 구한다면, 선의 개념은 주관의 내적 감각에 속해 있는 수용성으로서의 쾌와 불쾌의 감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가 하는 문제는 만족감과 결합해 있는 것에만 관련되며, 악의 개념은 직접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만 관련된다. 그래서 쾌락이 선이 되고, 불쾌와 고통이 악이며, 쾌락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 되고, 불쾌와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가 그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선의 개념을 의지 외부의 감각에서 구하고, 쾌락을 선이라 규정해서는 어떤 실천법칙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선의 개념에 전제되고 있으면서 만족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그 무엇에 대한 관념이 쾌락을 수반하는지 또는 반대로 불쾌를 수반하는지를 우리는 선천적으로 통찰할 수 없고, 오직 경험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선의 개념에서도 어떤 종류의 이성 사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단의 목적에 대한 관계와 목적 자체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성이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행위의 원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쾌를 촉진시키고 불쾌를 피하게 하는 이성의 준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준칙이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 즉 이성의 사용은 “한편으로 생존의 모든 감각과 전체적으로 연관해 있는 쾌와 불쾌를 규정하는 점에서 성립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쾌와 불쾌의 대상을 우리에게 주는 수단을 규정하는 점에서 성립한다.”⁸⁾ 이

5) Ibid.

6) Ibid.

7) Ibid., s.74.

8) Ibid.

런 이성의 사용을 칸트는 경험적이라 부른다.⁹⁾ 이성의 실천적인 경험적 사용은, 그러므로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의 목적에 대한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그런 준칙은 어떤 그 자체로 선한 것(etwas für sich selbst Gutes)을 의지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무엇을 위한 선, 즉 유용성으로서의 선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¹⁰⁾ 그래서 선은 오직 어떤 다른 것 즉 쾌감에 대한 수단에서만 구해진다. 반면에 목적에 대한 이성의 사용에서는 선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유용한 것이 항상 순수 의지 외부의 감각에 있으므로, 그런 감각은 선의 개념과 구별되는 쾌적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경향성과 관계해서만 상대적으로 선일 뿐이다.¹¹⁾ 즉 수단에 대한 목적을 고려할 때의 선일 뿐이다. 상대적이든 유용성이든, 이러한 선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성의 준칙은, 칸트에 의하면 결코 법칙이라고 할 수 없고, 오직 이성적인 실천 훈계일 뿐이라고 한다. 우선적으로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쾌감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오직 경험만이 결정할 수 있고, 실천법칙은 조건적으로만 쾌감에 기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천적인 실천법칙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상대적 선에 대해서 이성의 사용은, 칸트에 의하면, 선이 아니라 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한다.¹²⁾ 그리고 그것은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감정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칸트는 목적의 측면에서 이제 선과 복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양자를 구별하면서, 칸트는 <선의 근거 아래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것도 욕구하지 않고, 악의 근거 아래서가 아니면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명제에서 쓰이고 있는 라틴어의 선(bonum)과 악(malum)이란 용어가, 칸트에 의하면 선(Gute)과 복(Wohl)을 전자가 내포하고, 악(Böse)과 화(Übel) 또는 불행(Weh)을 후자가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¹³⁾ 그래서 우리가 bonum을 고찰할 때, 그것이 선이냐 아니면 복이냐에 따라 아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의 명제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복 또는 화를 욕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아주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선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한도 안의 것만을 의욕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본래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이러한 선과 복의 구별은 칸트가 들고 있는 다음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외과 수술을 받는 것은 수술에의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해서 분명히 화이지만, 그것은 의심할 것없이 선이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을 학대하고 불안케하는 자가 드디어는 불잡혀서 가혹하게 매로서 두들겨 맞는 것은 그에게는 분명히 화이지만, 동시에 선이다. 이 점은 화를 입은 당사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9) Ibid., s.23-4 참조

10) Ibid., s.69.

11) Ibid., s.73.

12) Ibid.

13) Ibid., s.70.

없는 사실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거기에는 복과 선행의 비례적 조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선과 복의 관점에서 판단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복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칸트의 논점이다.

이런 구별을 토대로 칸트는 “복이나 화는 항상 쾌적이나 불쾌적 즉 만족과 고통이라는 우리의 감정상태에 대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¹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쾌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고, 그런 대상이 쾌감을 가져온다면, 그 때의 감정상태를 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혐오하는 일은 그 대상에 의해 산출되는 쾌와 불쾌라는 감정에 관련해서 생기는 일이다. 반면에 “선이나 악은 항상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의지의 객관으로 하도록 의지가 규정되는 한에서의 의지에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의지는 객관이나 객관의 표상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지 않고, 이성의 규칙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 능력이다. 그래서 선이나 악은 원래 인격의 행위들에 관계하는 것이며, 인격의 감정상태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단적으로 또 모든 점에 있어서 조건없이 선 또는 악(이라고 생각되는)인 때에는, 그것은 오직 행위 태도, 의지의 준칙, 따라서 선인 또는 악인으로서 행위하는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선 또는 악이라고 불려지는 사물(Sache)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¹⁵⁾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여, 네가 여하히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네가 무슨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스토아 학도처럼, 고통 속에서도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이 곧 악이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성의 원리는 욕구능력이 가능케 하는 객관들을 고려함이 없이, 자체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성의 원리는 선천적인 실천법칙이며, 순수 이성만으로도 실천적이 될 수 있다. 즉 법칙이 직접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 “법칙에 적합한 행위가 자체선이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법칙에 적합하는 의지는 단적으로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선하고, 또 모든 선의 최상 조건이다.”¹⁶⁾ 의지의 준칙이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의지는 순수 의지가 아니다. 순수 의지는 순수 이성 자신만으로 실천적일 수 있는 것에만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은 선천적인 의지 규정의 결과로서 순수 실천원리를 전제하고 따라서 순수이성의 원인성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개념은 오성의 순수 개념들처럼, 또는 이론적으로 사용된(주어진 직관들의 다양을 하나의 의식에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이성의 범주들처럼, 원래는 직관들에 관계하지 않는다. 선과 악의 개념은 오히려 객관들이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¹⁷⁾

이로 인해서 결과하는 것은 순수 실천이성의 모든 규칙에서는 다만 의지 규정만이 문제된다는 점이며, 목적 달성의 자연적 제약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칸트에 있어서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는 곧 행위의 도덕적 가능성의 문제였다.

14) Ibid., s.71.

15) Ibid.

16) Ibid., s.73.

17) Ibid., s.71.

따라서 행위의 도덕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실천이성의 대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실천이성의 대상이라고 칸트가 주장하는 선이 무엇이며, 또 행복은 어찌해서 실천이성의 대상일 수 없다고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무조건적 선으로서의 선의지

앞에서 인용했듯이 선이나 악이란 용어는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을 의지의 객관으로 하도록 의지가 규정되는 한에서의 의지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래서 이성의 법칙에 적합한 행위가 자체선이다. 다시 말해서 선은 의지의 준칙이 항상 법칙에 적합한 그런 의지를 지시하는 용어이며, 그런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모든 점에 있어서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은 또한 실천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르는 이성적 의지의 필연적 대상이다. 따라서 이성적 의지의 필연적 대상으로서 선은 법칙에 적합한 의지를 의미한다.¹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선이 어떤 객관적 원리 그래서 어떤 개념 하에 포섭된다는 점이다. 즉 선은 우선적으로 의지의 준칙이 항상 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성적 의지의 대상은 단지 의지가 산출하는 또는 산출하려고 하는 결과로서의 사건들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칸트는 오히려 산출된 것의 선 보다는 의지 작용과 행위 또는 의지 자체의 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칸트에 있어서 어떤 목적들만을 언급하므로써 도덕적 행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 행위의 목적들은 일정하지 않게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또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에 의해서도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대상>의 의미를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¹⁹⁾ 왜냐하면 행위란 우리의 의지에 의해 산출된 세계의 변화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이고, 객관적 원리에 따라 의욕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며, 선한 의지가 객관적 원리에 따라 행위를 통해 산출하려 하는 것이 선한 사건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행위가 산출하는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라 규정된 의지가 필연적으로 의욕하게 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해도,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칸트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²⁰⁾ 왜냐하면 선하기 위해서는 한 행위가 단지 우연히 객관적 원리에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원리에

18) 여기서 Paton은 선이 이성적 행위자에 의해 의욕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이성적 행위자에 의해 의욕된다는 견해에 대해 네가지 가능한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New York: Harper & Row, 1967), p.110-2 참조.

19)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129-30.

20) H. J. Paton, p.104.

따라 의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라 규정된 의지가 의욕하는 행위가 이성적 의지의 필연적인 욕구대상으로서의 선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란 그 목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나 준칙, 원리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일관된 주장이다. 물론 그런 원리나 준칙은 단지 어떤 목적을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칙을 따르려는 준칙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형식적 준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법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인용했듯이, 도덕적 선은 사물이 아니라, 행위 특히 인격을 특징지우는 것이다. 행위는 행위자가 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라 그 목적에 의존함이 없이 행위하는 한에서만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탁월한 선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칙에 대한 표상 자체 이외에는 어떤 것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없다. 예상된 결과가 아닌 법칙에 대한 표상이 의지의 규정근거인 한에서, 법칙의 표상은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있을 수 있다. 이 탁월한 선은 그 표상에 따라 행동하는 인격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결과에서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²¹⁾

“실천적 선은 이성의 표상을 매개로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관적인 원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선으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다.”²²⁾

그래서 우리는 선한 자의 일차적인 목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칙을 따르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덕적 선이 행위자의 인격의 특성이란 말은 이처럼 단지 법칙에의 일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칙에의 표상에 따라 행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법칙에의 적합성은 때로 합법칙적 행위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반법칙적 행위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은 행위가 도덕법칙에의 적합성을 지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덕법칙을 위해 행해질 때”²³⁾ 존재하는 것이다. 도덕법칙에 일치해서가 아니라, 도덕법칙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것을 의욕하는 것을 말한다. 칸트에 있어서 그런 의지만이 인격의 특성이 되는 의지로서 법칙에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의지이고, 유일하게 선한 의지이다. 물론 그것은 어떤 맥락이나 조건, 또는 욕구나 제약에 관계없이 선하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이 세상 안에서나 이 세상 밖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 뿐이다”²⁴⁾고 말하고 있다.

21)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Shurkamp, 1956),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27 이하 *Grundlegung*이라 약칭함

22) *Ibid.*, s.42.

23) *Ibid.*, s.14.

24) *Ibid.*, s.18.

그런데 이성적 존재자로서 우리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알고 있는 방식으로 행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항상 이성의 원리에 따라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로 해서 법칙에의 표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의 표상으로, 이성의 객관적 원리는 의무의 원리로 나타난다. 즉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성적인 우리에게는 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²⁵⁾ 그래서 법칙에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의지는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의지가 된다.

신성한 신의 의지는 선에 대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행위한다. 물론 선한 사람도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선 자체로 말미암아 행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너무 신격화하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의무의 동기를 간과하고, 선자체로 말미암아 행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도덕적 광신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²⁶⁾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불완전하게 선하며, 객관적 원리를 따르는 데 장애물이 되는 감정적 욕망이나 경향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의 원리는 객관적으로는 필연적이라고 여겨지나, 주관적으로는 필연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에 반대되는 이성의 원리들은 우리의 의지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강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그것에 따라 행위한다해도, 그것은 필연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다. 반면에 신의 의지에는 그러한 강제성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강제는 항상 원리에 대립되는 욕구나 경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며, 신의 의지는 이성이 경향성과는 무관하게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즉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관적 조건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 즉 부분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인식된 행위도 주관적으로 우연적인 것이 되며, 그런 유한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간에 있어서 선의지는 법칙에의 표상에 따라 강제되어서 행위하는 선의지로서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 어떤 목적이나 제약에 의거함이 없이 오직 의무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의욕하는 의지가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이며, 또한 자체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의무에 대해 “의무여! 너 숭고하고도 위대한 이름이여! 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너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²⁷⁾고 경탄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로 말미암아 행위하는 의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찬탄을 보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칸트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칸트에서의 도덕적 선은 법칙에의 표상 즉 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의지의 작동 또는 의무에의 의식에 강조되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도덕적 심정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무는 일종의 강제이다. “행위가 도덕법칙에 따라서 경향성에서의 모

25) *Ibid.*, s.41.

26) H. J. Paton, pp.52-3 참조.

27) K.d.p.V., s.101.

든 규정근거를 배제하면서 객관적으로 실천적일 때, 그런 행위가 의무²⁸⁾이기 때문에, 의무는 그 개념에 있어서 실천적인 강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내심으로는 싫어하면서도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에 대해 이것이 전부라면, 행하기 싫어하면서도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경향성에 반대하는 이성의 명령, 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런 복종으로 해서 어떤 경향성을 만족시키려는 의식이 없었다해도,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칸트는 의무에 대한 찬탄의 귀절에 이어서 의무가 인간의 의지를 협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단지 하나의 법칙만을 제시하고, 그 법칙은 비록 지켜지지 않더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²⁹⁾ 말하자면 의무는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런 존경의 대상이다.

칸트는 존경심을 “의지가 법칙에 자유로 복종한다는 의식”³⁰⁾이라고 정의한다. 물론 그런 존경심은 단지 실천적인 것에만 관계하고, 법칙의 어떤 객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형식상으로 법칙의 관념에 속해 있는 도덕적 감정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쾌나 불쾌와도 관련이 없다.³¹⁾ 칸트에 의하면 법칙은 인간에 대해서 동기로서 두가지 기능을 하는 데, 첫째는 소극적 기능으로서 경향성이나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억압하므로써 고통이라 불리우는 감정을 산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극적 기능으로서 그런 장애물의 제거에 있어서 자유의 원인성의 적극적인 증진이며, 이것이 존경심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존경심은 의지의 적극적인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바깥만한 것에 대해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공물과 같은 것이다.³²⁾ 그러기 때문에 도덕법칙은 우리에게 강제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라기 보다 마땅히 바쳐야 할 것으로서의 존경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무의 강제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무의 억압적인 강제적 힘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이 감성적 욕구와 경향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인 한에서, 의무와 도덕법칙은 이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향성과 욕구의 측면에서 의무는 하나의 강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에 그런 경향성에 반대해서 이성의 객관적 원리에 따르는 의지의 규정의 측면에서 존경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무의 개념은 객관적으로는 행위에 즉해서 법칙과의 일치를 요구하고, 주관적으로는 행위 준칙에 즉해서 법칙에 대한 존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합의를 행위를 했다는 의식과 의무에서 즉 법칙의 존경에서 행위했다는 의식과의 구별은 실로 이점에 기본한다. 전자(합법성)은 경향성이 오로지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였을 때에도 가능하되, 후자(도덕성)은 행위가 의무로 말미암아

28) Ibid., s.94.

29) Ibid., s.101.

30) Ibid., s.94.

31) Ibid., s.90-1 참조

32) Ibid., s.90.

생기는 점에 두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단지 법칙을 위해서 생기는 점에 두어져야 한다.”³³⁾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선은 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의지에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극복하고 보편적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존경이란 도덕적 감정을 수반할 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칸트에 있어서 선은 단지 형식적으로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식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즉 단순한 의무의 동기가 아니라 존경이란 도덕적 감정을 수반하는 의무의 동기에서 선의지의 무조건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도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심정에 존재한다”³⁴⁾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하는 행위의 필연성”³⁵⁾인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과 의무의 관계이다. 칸트에 있어서 선은 항상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선의 의지의 경우처럼, 의무가 없는 그래서 오직 자발적이며 필연적인 사랑에 관련된 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이 의무보다 더 기초적이라고 생각되며, 의무는 오직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무와 무관한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성의 대상은 의무라기 보다 선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선은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의무로부터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 아니라 바쳐야 할 공물로서의 존경심을 수반하는 실천이성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은 도덕적 행위자의 인격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V. 행복과 인간이성의 기능

지금까지 우리는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선은 이성의 법칙에 적합한 행위, 법칙에의 표상 즉 의무로 말미암아 존경심으로 가지고 의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그렇다면 II장에서 구별한 것처럼, 그런 무조건적 선 즉 도덕적 선과 구별되는 행복은 어찌해서 실천이성의 대상일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칸트도 인정하고 있듯이, 인간은 감성계에 속한 존재자로서 항상 결핍된 존재이고 필요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은 거부할 수 없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³⁶⁾, 그것은 감성의 요구에 기여하고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감성계의 한 존재자로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인 임무를 가지므로 행복 추구의 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고대에서부터 행위의 목적으로서 추구되는 선으로써 이해되어 왔다. 칸

33) Ibid., s.95.

34) Grundlegung, s.45.

35) Ibid., s.26.

36) K.d.p.V., s.72.

트는 행복을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선과 구별하므로써, 행복의 선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에 대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칸트는 행복이 여러면에서 선하다고 하거나, 이성의 견지에서 행복은 비도덕적 행위에서 생겨난 것 이외의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없다³⁷⁾고도 하며, 그러면서도 행복에의 경향성이 아무리 크다해도, 행복이 도덕적 행위와 결합되지 않는 한, 이성은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다³⁸⁾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Paton은 일관성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행복을 제외하고 모든 행복이 선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³⁹⁾ 말하자면 악한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나, 또는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므로써 느끼는 행복과 같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행복이고, 따라서 선하다고 볼 수 없는 행복이다. 여기서도 이런 Paton의 해석에 따라 어떤 악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한에서 행복은 선하다고 보고자 한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선하다고 볼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선한 행복은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바꿔 말해서 행복이 선하다고 해도 그 선이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선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행복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 개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성은 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즉 이성은 행복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성의 사용, 즉 목적에 대한 수단의 규정에 있어서 그 목적이 되는 행복에 대해서 칸트는 쾌락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칸트는 행복을 “이성적 존재자의 전 현존에 끊임없이 수반되는 쾌적한 삶이라는 의식”⁴⁰⁾이라고 규정한다. 즉 그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종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전체 생활을 통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쾌락의 가능한 최대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⁴¹⁾

행복을 이렇게 쾌락주의적 견해에서 파악할 때, 실천이성의 역할은 직시된 쾌락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의욕하는 것이 된다. 칸트는 이런 이성 사용의 원리를 자기에의 원리 또는 행복의 원리라고 부른다. 그것은 행복을 의지(willkür)를 규정하는 최고 근거로 삼는 원리이다. 이런 원리는 칸트에 의해 의지 규정근거를 대상의 현실에서 느껴질 쾌나 불쾌에다 두는 모든 실질적인 원리로까지 확대된다. “모든 실질적인 실천 원리는 자체상으로는 동일한 종류이며, 자기에 즉 자기 행복의 보편적 원리에 속한다.”⁴²⁾ 말하자면 어떤 행위를 의욕함에 있어서 그 규정근거가 단지 법칙에 의 표상에 따르지 않고, 어떤 욕구능력의 실질에 의존하는 한, 그 욕구능력은 주관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쾌나 불쾌의 감정에 관련된 그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37)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Verlag, 1956), B842 이하 K.d.r.V.라 약칭함.

38) Ibid., B841.

39) H. J. Paton, p.39 참조.

40) K.d.p.V., s.25.

41) H. J. Paton, p.85

42) K.d.p.V., s.24.

그러나 칸트는 이와같이 행복을 오직 쾌락의 최대치라는 관점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성의 사용에 있어서도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만을 고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성의 사용은 추구해야 할 바의 목적, 즉 수단에 대한 목적 자체를 고려할 수 있다. 그는 쾌락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쾌락의 최대치로서의 행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보면서, 행복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경향성의 총체적 만족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⁴³⁾ 행복을 이와같이 간주할 경우,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수단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행복의 요소로 여겨지게 된다. 그런 요소들은 부, 지식, 건강과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실천이성은 알려진 목적 즉 행복(지속적인 쾌락)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을 구성하는 것들에 관계한다. 그것은 유기적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만족시키거나 본성적인 경향성들이 행복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즉 행복의 구성요소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감성계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유기적 생활에서 다양한 목적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목적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기애의 원리는 지속적인 쾌락에의 수단을 사용하는 원리라기 보다는 그 목적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전체(행복)으로 통합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이중적이므로, 선에 대한 관점도 이중적이다.⁴⁴⁾ 즉 행복을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느낌으로 간주할 때, 선은 단지 그런 상태에 대한 수단으로 취급되며, 행복을 목적의 통합으로 볼 때, 포괄적인 행복이 선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감정이란 의미의 행복은 이성적 행위자가 이성적이므로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목적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쾌락은 행복의 한 요소일 뿐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유기적 삶에서 자신의 모든 목적들을 달성했으나,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를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흔히 쾌락을 행복으로 오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쾌락을 주는 감정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관점에서, 칸트는 행복을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하면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될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복은 객관적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의미에서의 선이 실천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다. 그것은 쾌와 불쾌라는 욕구능력의 실질적인 규정근거가 어떤 법칙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행복의 개념은 오직 주관적인 규정근거의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하고, 특수적으로 해야 할 바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주관이 행복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가는 쾌와 불쾌에 대한 각자의 감정에 의존하며, 동일한 주관에 있어서도 감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애의 원리가 목적에 대한 수단을 발견하는 속달의 원리(나는 최대의 쾌락을 보

43) K.d.r.V., B834. 또는 Grundlegung, s.32.

44) H. J. Paton, p.105.

장하는 수단을 사용하겠다)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런 실천적인 원리는 결코 보편적일 수 없는 실천적 훈계 또는 충고일 뿐이다. 즉 욕구능력을 규정하는 근거가 보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없는 쾌와 불쾌의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필연적이거나 객관적으로는 우연적인 실천원리이다. 그런 우연적인 실천원리는 상이한 주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아니 상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결코 법칙을 제시할 수 없다. 행복의 추구에는 합법칙성의 형식이 아니라 오직 실질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이란 목적에 대한 수단의 규정에 있어서, 즉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수단들에 관해서 상이한 주관 각자가 일치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동일한 자기애의 원리를 가진다해도, 그런 원리는 실천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⁴⁵⁾ 왜냐하면 그런 일치 자체가 순전히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실천원리의 필연성을 실천적인 것으로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것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문제는 아주 달라진다. 즉 남들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품하듯이 행위가 우리의 경향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강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거기에는 어떤 자유의지도 있을 수 없고 오직 물리적으로 필연적인 자연법칙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포괄적인 선으로서의 행복은 어떠한가? 그런 행복은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선을 확립할 수 있는가? 행복의 추구를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리고 유기적 생활에서 서로 다른 목적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본다면, 또한 이성이 욕구능력을 지배할 경우, 다양한 목적들을 필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참이라면, 포괄적인 목적으로서의 행복이 선이며, 각 목적들은 이 포괄적인 목적의 요소로서 그것들의 선을 지니게 된다. 그것들은 행복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의 요소들이며, 그래서 <구성적 수단>이라 불리운다. 요소라기 보다는 수단이라 부르는 이유는 욕구하는 목적에 대한 수단뿐만 아니라 욕구하는 목적조차 그것이 전체 행복과 상충되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괄적인 목적으로서 <나의 선>이란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⁴⁶⁾

나의 선은 단지 내가 우연히 나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나의 생각이 잘못일 수 있으며, 그 좋음이 나의 특성과 욕구등에 따라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 있다. 즉 타인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나의 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선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행복과 그 요소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은 단지 나에게만 선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의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자가 유기적인 생활에 결합할 수 있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활동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선이 이처럼 나의 욕구에 대해 상대적이라해도, 나의 선은 어떤 이성적 행위자에 대해서도 선으로서 요구되어야 한다.⁴⁷⁾ 그래서 새디스트의 목적은 정

45) K.d.p.V., s.29-30.

46) H. J. Paton, p.106 나의 선은 수단으로서 사물들을 포함하지만, 주로 활동에 있다.

47) K.d.p.V., s.40-1.

당한 나의 선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의 추구에서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또는 <나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체 생활에서 나의 욕구들의 만족을 목표로 삼겠다>는 사려의 원리가 조건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이성적인 한,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비록 서로간의 조화가 있다해도, 그것은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조화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외적 법칙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개인의 욕구도 그의 환경이나 경험의 한계 내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내적 법칙도 수립할 수 없다. “여러 경향성을 모두 전면적으로 조화시키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⁴⁸⁾. 그러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행복을 포함해서 행복을 촉진하는 규칙은 그런 행복이 모든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서로간의 조화를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애의 준칙에 법칙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주는 조건으로서 이성이 요구하는 보편성의 형식이 의지 규정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실천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행복을 실질로 하는 준칙이 법칙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대상(행복)의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성의 형식이 의지 규정 근거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행복의 원리는 비록 보편적인 행복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의지의 법칙으로 쓰이는 법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규칙을 줄 수 있으나, 보편적인 규칙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쾌락의 최대치이든 포괄적인 행복이든, 행복의 추구는 도덕적 가능성의 문제로 해석된 실천이성의 대상일 수는 없으며, 도덕적 선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론과 행복론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런 구별이 실천이성의 분석론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지의 모든 규정들은 유일한 순수 실천이성의 법칙(도덕법) 이외에는 모두 경험적이며, 따라서 행복원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다 최상의 도덕원리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조건으로서 도덕원리 속에 합병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마치 기하학의 원칙들에 경험을 합병하는 것이 수학적 명증성을 없애는 것처럼, 모든 도덕적 가치를 없애기 때문이다.”⁵⁰⁾

칸트는 이런 구별을 자연의 합목적성에 의거해서 보충하고 있다. 즉 그는 이성 자체에 고유한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유기체의 모든 각 기관은 전체의 목적의 요소가 되는 자신의 고유 목적에 적합하며, 그런 목적들은 전체 목적에 적합하다는 목적론에 의거해서, “자연은 모든 피조물의 자연적 소질에 적합한 목적을 분배한다”⁵¹⁾고 가정한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에 명

48) K.d.p.V., s.33.

49) Ibid., s.41.

50) Ibid., s.109.

51) Grundlegung, s.22.

령을 내리는 기관으로서의 실천이성을 가지며, 그런 실천적 능력으로서의 이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성이 실천에 있어서 다른 모든 목적에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성의 고유한 할 일은 행복보다는 이성 자신의 이념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자연이 이성을 의지의 지배자로 삼은 이유는 만일 유기체의 자연적 목적이 행복일 경우, 그 달성을 위한 수행자는 이성보다 본능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²⁾ 더우기 만일 이성이 동물에 있어서처럼 본능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만 쓰인다면,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가치상으로 인간을 동물보다 더 높이지 않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을 단지 감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만큼 완전히 동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⁵³⁾ 그래서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여타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생기게 하는 데 있어야만 하며, 또 선한 의지의 그런 발생에는 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⁵⁴⁾고 한다.

따라서 이성의 고유한 목적은 선의지의 산출이다.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제한적인 조건이나 목적이 없는 절대적 선의지의 이념에서는 산출되어야 할 모든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적은 언제나 의지를 상대적으로만 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목적은 산출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립적인 것으로, 따라서 소극적으로만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성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이 오직 선의 추구라면, 거부할 수 없는 감성의 요구는 전적으로 본능의 기능이고 목적에 속하는가? 칸트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행복이 이성의 목적이라면, 자연은 그런 목적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수단의 선택까지 본능에 위촉했어도 충분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양된 이성에 의거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만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고통에 더 시달리며, 이성에 대한 혐오내지는 멸시가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⁵⁵⁾

그러나 칸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컨대 본능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더 큰 고통이 뒤따르는 경우, 이성은 사려의 원리에 의해 본능에 따르지 않도록 명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성에 따라 본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아쉬운 감정을 낳기는 하지만, 행복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이성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본능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실 칸트는 행복 추구의 목적을 이성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행복을 이성의 고유 목적 밑에 종속시키고 있을 뿐이다. 사실 선한 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는

52) Ibid., s.20.

53) K.d.p.V., s.72-3.

54) Grundlegung, s.21-2.

55) Ibid., s.20-1.

간접적인 의무마저 가지고 있다.⁵⁶⁾ 그렇지만, “인간은 그의 자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위해 이성을 가지지만, 그 이외에 더 높은 사명을 위해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높은 사명은 자체상 선 또는 악인 것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이성의 판정과 감성의 판정을 구별하여, 전자를 최고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⁵⁷⁾ 따라서 “인간의 개인적인 목적은 최상의 제약으로서의 이 이념의 하위에 종속해야 한다.”⁵⁸⁾ 그래서 선한 자는 그가 선한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삶 전체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선이나 도덕적 선과 충돌하는 나의 선은 선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행복을 위해 수단을 판정하거나 또는 행복의 구성 요소들을 전체 행복에 통합시키는 기능과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기능은 언제나 도덕적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성이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추구라는 유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도 조건적이지만 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 선과 유용성의 선, 행복과 그 요소로서의 선들을 구별하고 그것들의 제약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예술, 과학 등의 가치는 행복에 의해서나 도덕에 의해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들도 행복에 대해서 처럼, 그것들의 진리, 타당성, 미 등에 관련된 선들을 실천이성의 원리에 관련시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도덕적 삶의 요소로서 그것들도 조건적이긴 하지만 선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물론 다른 여타의 활동들도 도덕적 삶의 요소로서 선을 지니며, 그런 한에서 상대적으로 실천이성의 목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행복과 그런 여타의 활동들의 선은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법칙과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성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과 다른 여타 활동의 추구하고 도덕적 선의 추구는 대립적인 것일 수 없으며, 단지 후자가 전자의 조건이 될 뿐이다. 그래서 칸트에 의하면,

“행복원리와 도덕원리를 구별하는 것은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 실천이성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무가 문제될 때 행복을 돌보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돌보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의무이기도 하다. 부분적으로 행복(이에 속하는 숙련, 건강, 부유 등)이 의무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불행(예컨대 가난)이 의무를 위배하도록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무일 수 없고 의무의 원리일 수 없다.”⁵⁹⁾

이성적 존재일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감성적 요구(행복)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측면에서, 실천이성은 오로지 그것의 순수한 실천적 사용만을 가지

56) Ibid., s.25.

57) K.d.p.V., s.73.

58) Grundlegung, s.21.

59) K.d.p.V., s.108.

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실천적 사용도 가진다. 이점이 행복의 원리와 행복한 삶으로부터 도덕의 원리와 도덕적 삶을 구별하면서도, 그 양자가 서로 대립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에 있어서 이성의 순수한 실천적 사용만이 요구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경험적 사용만이 요구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만 이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며, 순수한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적 요구를 도외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이성의 사용은 도덕적 삶과 도덕적 선의 제약하에서 행복과 다른 여타 활동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복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두 원리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본래 감정의 대상인 행복은 도덕적 선의 조건하에서 인간이성이 도덕적 삶의 요소로서 고려하고 통합시켜야 하는 대상(비록 이 경우에도 행복은 여전히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의미에서 선이라 해도)이 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실천이성의 대상은 법칙에의 표상에 따라, 즉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수반해서 행위하는 행위의 필연성(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선의지였다. 선의지를 제외할 어떤 목적이나 객관도, 심지어 행복마저도 실천적인 법칙을 제공할 수 없기에 실천이성의 대상일 수 없었다. 그래서 도덕론과 행복론은 칸트에게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두가지 서로 다른 주제이다.

그렇지만 감성적 존재자로서 필요를 지닌 인간의 유한성의 측면에서 이성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성은 이성적 존재 일반의 도덕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감성의 요구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칸트는 행복원리가 도덕적 선을 확립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선과 대립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행복의 추구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의무라고 까지 말한다. 완전한 이성적 존재가 아닌 유한한 감성적이며 이성적인 존재자로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또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삶의 추구는 도덕적 삶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행복의 추구는 언제나 도덕적 선의 실현을 전제한다. 그래서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지를 묻는 것은 그것이 행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며, 전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 필요도 없다. 오히려 후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행복할 만한 값어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행복할 만한 값어치가 있도록 행위했는가?>라는 질문이며, <내가 무엇을 바라도 좋은가?>라

는 질문은 <내가 행복할 만한 값어치가 있도록 처신했다면 나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도 좋은가?>라는 질문이라고 한다.⁶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칸트의 이중적이고 비일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견해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실천이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도덕적 가능성, 다시 말해서 행복 원리가 실천법칙을 제공할 수 있는나에 대한 문제로 해석될 경우, 행복은 이성의 대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도덕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의 대상은 오직 법칙에 대한 표상에 따라 의무로 말미암아 의욕하는 선의지일 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진 이성의 기능이란 측면에서 고려할 때, 행복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성의 대상이다. 물론 행복은 오직 조건적이긴 하지만, 즉 도덕적 선을 제약으로 해서만 추구될 수 있는 선이지만, 실천이성의 대상이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행복이 도덕을 전제로 해서, 즉 조건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도덕에 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최고선의 개념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이 도덕과 더불어 완전선을 이루는 이유는 이성적 존재 일반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한한 감성적 존재로서 감성의 욕구와 그 충족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런 전제 위에서 거부할 수 없는 행복에의 욕구가 도덕에 반하지 않는 조건적인 선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0) K.d.r.V., B837.

Summary

A Study on the Object of Practical Reason

Huh, Jeong-hoon

Happiness is not an object of practical reason in Kant's ethics. If an action is determined by the ground of happiness, it is necessarily heteronomous on Kant's moral principle. Such action is of no moral value and is ignored as irrelevant. Nevertheless Kan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o pursue happiness as an object of an action and suggests that happiness is an object to be pursued as a part of the highest good. Therefore, Kant seems to be inconsistent on happiness.

This paper shows that Kant's argument is twofold and inconsistent on the matter of happiness, and examines how Kant's twofold points are related.

This paper indicated that happiness was understood from the two different sides in Kant's ethics. One is the matter of the possibility of moral action and the other peculiarity of man as sensible being. Since the principle of happiness does not produce the practical law from the former point of view, it can not be the object of practical reason. But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from the side of the function of human reason in sensible world, it can be the object of practical reason. At this time, happiness is the conditional object only in human reason as a sensible being. In other words, it can be pursued on condition that it does not violate moral good. Therefore, the relation to be looked as contradiction between happiness and the moral is not contradictory, but conditional one.